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2133-5088
보육사업팀장	김혜영	2133-5110
담 당 자	주인선	2133-5108
	이소정	2133-512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810-5404
담당자	심도현	810-5165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7쪽

서울시, '오세훈표 서울형어린이집' 진입 장벽은 낮추고 공공성은 높인다

- 평가~컨설팅~교육 통합지원체계 가동...통합지원 중심으로 평가지표 대대적 개편
- 신규·재평가 어린이집 대상 평가 전·후 회계 등 컨설팅 통해 공인율↑, 투명성 담보
- 올해부터 회계·노무·보육과정 등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서비스 품질↑

- 서울시의 대표 공보육 브랜드인 오세훈표 '서울형어린이집'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은 한 단계 높인다.
- 서울시는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평가·컨설팅·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지표를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는 서울시 대표 공보육 브랜드로, 오세훈 시장이 공보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했다.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년 지정, 시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제도다. 5월 말 기준 470개소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며, 연내 600개소, 2025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① 통합지원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편, 신규는 정원충족률 낮추고 기존 시설 의무컨설팅 도입

- 첫째,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작년 12월부터 보육 현장 전문가와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통합적 지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 신규 공인의 경우 정원충족률을 낮춰 어린이집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3년마다 도래하는 기존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지 ‘의무 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회계 관리에 도움을 주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 (신규) 저출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신청 제외 기준에 기존 정원충족률 평균 60% 기준을 삭제하고 6개월 평균 현원 민간어린이집 11명, 가정어린이집 10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 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 (재평가) 기존 어린이집들이 회계 관련 지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것을 반영해 ‘의무컨설팅제도’를 신설하고 회계 관련 지표를 평가지표에는 삭제하되 평가지표에 ‘개선조치 이행률’ 지표를 통해 이행률 점점으로 관

리한다. ‘의무컨설팅제도’ 신규 도입으로 평가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된다.

- 보육하기 좋은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평가지표에 담겼다.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점검결과를 평가지표에 연계해 급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권익 보호와 보수 및 성과 연계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범지표도 신설했다.

<② 신규재평가 어린이집 대상 평가 전·후 컨설팅, 설명회 통해 공인율↑, 투명성 담보>

- 둘째, 장기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높여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전에는 소규모 집단 컨설팅을, 평가 후에는 1:1 개별 컨설팅을 실시한다.

- (신규) 평가 전 서울형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전 컨설팅 및 평가설명회를 통해 평가지표를 충분히 안내하고 평가 후 자진 포기 및 미통과 시설 중 희망 시설을 대상으로 사후 방문 1:1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다음연도 신규 공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재평가) 평가 전 의무컨설팅 및 평가설명회를 통해 관련 내용 및 규정을 안내하고 평가 후 탈락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후 방문 1:1 컨설팅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추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올해부터 회계·노무·보육과정 등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서비스 품질↑>

- 마지막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기존 서울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신규 대상으로는 보육의 공공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위주로 기존 대상은 수준별로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한다.

- 서울형어린이집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7월부터 원장들을 대상으로 원장리더십, 인사 및 조직관리, 재정관리, 시설관리 (안전·건강), 보육과정 운영 전문성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 어린이집 운영기준 중심의 교육뿐 아니라 보육과정 및 아이와 상호작용 분야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교육한다.
- 위와 같이 개편된 절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규 어린이집 대상 현장 평가 및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의무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형어린이집만의 평가-컨설팅-교육의 통합지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급변하는 보육 현장과 동행하여 공보육 대표 브랜드로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서울형어린이집’의 평가지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참여 문턱은 낮추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은 높여나가겠다.”며 “아이·부모·교사가 모두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많은 어린이집이 관심을 가지고 ‘서울형어린이집’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서울형어린이집 달라지는 내용 요약

2. 서울형어린이집 사진 및 평가 설명회·컨설팅 사진
3. 서울형어린이집 공식 BI 및 적용 현판.

2023년 서울형어린이집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서울형어린이집 2025년까지 800개까지 확대 목표

'22년 496개소 → '23년 600개소 → '25년 800개소

○ 달라지는 2023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및 관리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기대효과
① 평 가지 표 개 편	- (신규) 정원충족률 60% 미만 이거나 6개월 평균현원 가정 10명, 민간 11명 미만 어린이집 진입 불가	- (신규) 정원충족률 삭제	진입 장벽 완화
	- (재평가) 회계지표에 높은 점수 부여로 현장에서 평가 어려움 토로	-(재평가) '의무컨설팅 제도' 도입	어린이집 회계 지속관리로 투명성 ↑ 부담감 ↓
	- (기타) 급식지표 현장평가자 직접 평가	-(기타) 급식관리지원 센터 지표 연계 활용 - 연차사용률 등 교사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시범지표 도입	급식관리 전문성 및 교사 권익 보호 강화
② 컨 설 팅 강 화	- 평가 전·후 컨설팅 없음	- 평가 전·후 다양한 컨설팅 제공	신규 공인 유도 및 재공인 유지 지원
③ 교 육 과 정 신 설	- 별도 교육과정 없음	- 서울형어린이집 대상 기본심화 교육과정 운영	보육서비스 품질 지속 관리



서울형어린이집 사진



2022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설명회



2023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대상 소규모 컨설팅

